

전남 대표 국악단 공연 개최

올해로 8년째…진도향토문화회관서

‘남도풍류’ 주제로 오늘 오후 5시



전남을 대표하는 3개 국악단이 송년합동공연을 11일 개최한다.

진도군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국립남도국악원, 전남도립국악단 등 남도를 대표하는 3개 단체가 11일 오후 5시 진도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송년합동 공연을 펼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남도풍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

번 공연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열리고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무대의 문을 여는 무대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8호인 ‘강강술래’ 합동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쟁, 가야금, 거문고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산조’와 우도농악의 다채로운 판굿가락을 바탕으

로 한 ‘벼꾸춤’, 단막창극 ‘놀보’ 부친 유언대복과 함께 진도군의 역사유적, 자연풍광을 노랫말로 엮은 ‘진도풍류’가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공연은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진도아리랑’ 공연으로 전통 진도아리랑의 소리와 관객들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공연의 시작과 끝은 3개 단체가 합동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무대로 단체의 상징성을 지님과 동시에 우리 전통공연의 조화로움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교류의 장이 열리는 자리이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 송년합동

공연은 남도지역의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남도 예술의 진면목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천사아그로텍, 신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4만원 기탁



천사아그로텍 박현재 대표는 9일 신안군장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재)신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4만원을 기탁했다.

박현재 대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신안에서 지원 농부의 후손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농업을 준비하는데 저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신안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고 기탁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우량 이시장은 “우리 신안군 관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컨설팅, 판매, 지도 등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는게 쉽지 않을텐데 신안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우리군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지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앞으로 신안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신안군장학재단은 지난 3일 제4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내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지원자격 중 부모 모두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는 것을 부 또는 모 둘 중 한사람으로 완화, 둘째, 대학생의 지원가능 학점을 B학점(3.0)이상에서 C학점(2.0)이상으로 하향 조정, 셋째, 장학금 지급 액을 초등학생 3십만원, 중학생 5십만원, 고등학생 7십만원, 대학생 3백만원으로 학교별로 균등하게 변경하였다. 장학금 총 지원 규모도 8억2천만 원으로 2019년도 보다 1억 이상 증액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9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부터는 출신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기구당 상위 학생 1~2명마을 제한적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바꿔 자격을 갖춘 모든 아이를 선발하여 다자녀가정에 유리하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있다.

강진군 군동면 풍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본격 착수

풍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 완료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강진군은 2019년 풍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지방비 60억 원(국비42억, 지방비18억)을 확보했다. 이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격 광역상수도 배·급수관로 매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며, 2021년까지 광역상수도 배·급수관로 21km를 매설하여 급수구역내 금강리, 용소리, 풍동리, 덕천리 4개리(10개마을), 급수구가구 427가구, 급수인구 700명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목포시, 행복나눔 김장김치 나누기로 이웃사랑 실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170여 가구에 전달

목포시는 지난 6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2019 행복나눔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과 지원봉사자 등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외국인 김장 체험 마당’을 함께 열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김장을 체험하면서 한국 전통 음식문화를 접하고,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지원봉사자들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린 김장김치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170여 가구에 전달됐다.

한편, 목포시는 「참! 좋은 사람의 법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저소득 취약계층 집수리 및 밀반찬 배달 등 지원봉사자들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목포사랑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망운면, 장재마을 대청소 실시



무안군 망운면은 9일 망운면 장재마을 일대에서 장재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정화활동은 장재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진입로에서 마을 안길까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영농폐기물과 재활용

품 등을 분리수거하는 등 공동 집하장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형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였다.

장재마을 대청소에 참여한 한마을 주민은 “내 손으로 마을을 정리하니, 마을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김용구 장재마을 이장은 “대를 이은 삶의 터전을 깨끗이 지키고 방치된 쓰레기를 지원으로 순환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망운면은 매주 금요일 “깨끗한 무안 만들기”와 분기별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용산면, 노인일자리 교육

장흥군 용산면은 지난 9일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생명사랑 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용산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치매예방 및 견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울, 사회적 고립, 상실감 등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영석 용산면장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사업 및 일상 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